

패스트무비 등 리뷰 콘텐츠 제작자는 긴장해야



LG CNS,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성료

LG CNS는 5개월간 진행된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2024'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총 378개팀(827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LG CNS 현신균 대표(왼쪽)가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2024'에서 대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DMS'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LG CNS



에코프로이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에코프로이엠은 포항캠퍼스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왼쪽부터)에코프로이엠 전영배 사업지원팀장과 대구지방보훈청 김말순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코프로



한솔제지, 준법경영 국제표준 'ISO 37301' 획득

한솔제지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준법경영 관련 국제 표준인 'ISO 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솔제지 한철규 대표(왼쪽)가 한국경영인증원 황은주 대표로부터 인증서를 받고 있다. /한솔제지



가스안전공사, 초등학생 대상 백일장 대회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5일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체육관에서 충북혁신도시 인근 초등학생 약 100명을 초청해 어린이 가스안전 백일장 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가스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글짓기 대회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가스안전공사



박상규 중앙대 총장, '안성천 쓰담달리기' 행사

중앙대학교는 24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다빈치캠퍼스 인근 안성천 일대에서 개최한 '총장님과 함께하는 안성천 쓰담달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규 총장과 이형한 다빈치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중앙대 교직원들과 학생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안성천 일대를 돌며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중앙대학교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짧은 시간에 자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숏폼(short-form)' 콘텐츠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것이 됐다. 콘텐츠 소비 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존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까지도 짧은 시간 내로 요약해 끝말까지 알려 주는 '패스트무비(fast movie)' 등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패스트무비'는 한 편의 영화나 여러 회분량의 드라마 시리즈를 요약한 리뷰 영상 콘텐츠를 말하는데, 장편 또는 장시간의 콘텐츠를 핵심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맞물려 비슷한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패스트무비'는 해당 콘텐츠의 영상과 음성, 내용 등을 편집·요약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등(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 등)을 구성하게 된다. 과거부터 '패스트무비' 등이 원저작물(요약된 영화 등)의 흥행이나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되거나 어쩔 때에는 제작사 측에서 직접 패스트무비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패스트무비'가 원저작물과 대체적 관계에 있어서 원저작자의 피해로 귀속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작권자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제작년 동경

지방재판소가 패스트무비 제작자에게 5억엔(약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화제가 됐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방재판소에서는 패스트무비 제작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가 패스트무비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패스트무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저작권 침해로 부정하기 어렵고, 거의 대부분의 '패스트무비'는 유의미한 창작적 노력이나 변형 없이 원저작물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이용의 목적이나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거의 모든 분량),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에서 공정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5) 등이 적용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무비'와 관련해 민사, 형사상의 법적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이고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영화 유투버 등은 창작하는 리뷰 콘텐츠의 성격상 원저작물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이상 원저작물의 저작권으로부터 이용허락 등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도 결국은 창작자이므로 창작자와 창작물의 보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LG화학, 유럽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 "친환경 기술 R&D 강화"

독 프랑크푸르트서 개소식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술 발굴"

LG화학이 탈탄소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미래 기술 확보에 나섰다. LG화학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이노베이션 센터(Europe Innovation Center) 개소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EU(유럽연합)는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규제나 정책이 가장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시행되는 지역이다. 올해부터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감축이 의무화됐고, 2030년부터 과일 등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이 전면 금지된다. 또 배터리법 시행으로 폐배터리 수거 규모가 오는 2025년



LG화학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에서 유럽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바이오소재기술2TFT 강동균 수석연구위원, CTO 이종구 부사장, 기술기획그룹장 이호경 상무, 유럽BS담당 이충희 부문담당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화학

약4GWh(기가와트시)에서 2040년 200GWh 규모로 약 50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유럽에서 차세대 전지소재, 바이오 소재, 전

연구소, 스위스 연방공대(ETH Zurich) 등 유럽 내 선도 연구소, 대학과 협력 관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동 연구개발부터 우수인재 확보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R&D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EU 지역 내 R&D(연구 인력 규모도 2028년까지 40여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G화학 CTO 이종구 부사장은 "LG화학은 이번 연구소 개소를 통해 친환경 기술 R&D 역량을 글로벌 선도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친환경 플라스틱, 배터리 재활용 등 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술 발굴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형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상명대, 반도체설계대전 '기업특별상'

상명대학교는 시스템반도체공학과 4학년 윤승재, 전정주, 이은성, 정태연 학생(지도교수 김선희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이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에서 기업특별상인 'SK하이닉스'를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25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은 반도체 설계 분야 대학(원)생들의 설계능력을 배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반도체 산업의 기초 경쟁력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학생팀의 수상작품은 '샘플링 기법 기반의 배터리 SoC 추정을 위한 확장 칼만 필터'로 고정소수점 연산, 파이 프라이닝, 병렬 처리, 그리고 샘플링 기법을 활용해 SoC(System on Chip:시스템온칩) 추정 모듈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상명대 수상작품은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에 의한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과충전 예방 SoC 추정에서 기존 SW(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것과 달리 HW(하드웨어)로 처리함으로써 실시간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 최적화 과정을 구현해 전력 소모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ih@



상명대학교 시스템반도체공학과 4학년 윤승재, 전정주, 이은성, 정태연 학생이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에서 기업특별상인 'SK하이닉스'를 수상했다. /상명대

스타벅스 "바리스타 체험해보세요"

내일 'JOB 박람회' 개최 스타벅스코리아가 오는 29일 국제비영리 청소년 교육단체 JA코리아와 손잡고 바리스타 직무 체험을 할 수 있는 'JOB(잡)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JOB 박람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바리스타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회차별 100명씩을 모집해 행사 당일 총 3회 열린다. 이번 행사는 ▲바리스타 멘토링 ▲모의면접 ▲나만의 음료 만들기 ▲커피 원두 비교 테이스팅 등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실무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고, 이력서 사진 촬영 지원, 사회 초년생 월급 관리 노하우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JOB 박람회 참가자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JA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해당 사이트 '교육사업' 탭에 있는 신청·참여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최경례씨 별세, 김병철(대신증권 경영전략총괄 부사장)씨 모친상, 안보경(대신증권 압구정WM센터 차장)씨 시모상=27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9일 오전 8시 40분. 02-3010-2000 ▲이대열씨 별세, 성일용씨 남편상, 이재학·경옥·재상·영옥씨 부친상, 도총회, 김기린(전 우리금융 우리은행 홍보본부장, 현 우리카드 전무)씨 장인상, 정묘영·조정숙씨 시모상 = 27일,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장례식장 22호실(28일은 14호실), 발인 29일 오전. 02-2258-5975